



봉천복지관 카카오플러스 친구해주세요!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손쉽게 친구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봉천복지관과 카카오플러스 친구하는 또 다른 방법!



마을을 담는 사람들 이정심. "행복한 나들이"



포지사진 우리마을 얼굴지도

CONTENTS

- | | |
|------------------|--------------------|
| 02 | 카카오플러스 친구추가 |
| <hr/> | |
| 소통하는 마을 | |
| 04~05 | 2018 함께 쓰이올린 별 |
| 06~07 | [사례관리] 모금함 이야기 |
| 08~09 | [지역복지] 마을만들기사업 |
| 10~11 | [복지서비스] 복지Story |
| 12 | 온기담기 |
| 13 | 복지관 이모저모 |
| <hr/> | |
| 나눔이 있는 마을 | |
| 14 | [덕분입니다] |
| 15 | 자원봉사 미담사례 |
| <hr/> | |
| 봉천NEWS | |
| 16~17 | 함께하는 따뜻한 손길 행복후원 |
| 18 | 함께하는 따뜻한 손길 행복자원봉사 |

BONGCHUN
이웃사랑

-이웃사랑 통권 64호 · 발행인 | 황해진 · 편집인 | 김은희, 김예슬
· 발행처 |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 발행일 | 2018년 12월 31일 · 디자인 | 예원
· (우)08733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254 (구 청림동 37번지)
Tel | 870-4400 / Fax | 870-4420
www.borigchun.or.kr · www.facebook.com/bongchuny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37401-04-018411 예금주 :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

2018 함께 쏘아올린 별

2018년
7월 ~ 12월



7.19
취약계층 여름나기
가전제품 지원

7.25-26
청소년 봉사학교
에코브릿지

8.8-9
청소년자원봉사학교
봉천그린리더

8.24
애들아 놀자! 1탄
물총놀이

9.3
위드심리상담센터
평가회

9.10-12
인권특강
인권 똑똑! 인권 톡톡!

9.12
관재연 나들이

9.17-19
경로당 아웃리치
'어르신 파티해요'

9.20
한가위대잔치



11.12-13
경로당 아웃리치
먹거리키트 나눔

11.8-9
직원워크숍

11.7
주민조직 연합나들이
모꼬지

11.3
어르신 파티해요
겨울파티

10.24
거동불편어르신
나들이

10.23
아름다운이웃 협약식
미스터피자 서울대입구역점

10.16
우리마을희망네트워크
워크숍

11.14
KT&G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릴레이



12.11
희망마차

12.20
애들아 놀자 4탄
'크리스마스파티'



11.15
다문화페스티벌

11.19
사례관리
컨퍼런스

11.20
주민연합모임
김장나눔 / 자원봉사자나들이

11.21
주민조직
사업보고회

11.29
송년회
봉봉시네마

12.3
월드비전
꿈꾸는 아이들 협약식

12.14
별별바자회

12.22
덕분입니다
아이러브크리스마스파티

해피빈

GIVE
기부하기평범하게
공부하는 것이
소원인
순진이

중학교 3학년인 순진이는 요즘 공부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한 달 전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재미와 승부욕이 생겼다면서 의욕이 넘칩니다.
그런데 순진이 어머니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순진이 가족은 할머니, 아빠, 엄마와 함께 어린 동생 3명과 함께 살고 있는 7명 대가족입니다.

아버지의 수입은 생활비로 쓰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순진이 어머니는 딸의 마음을 응원해주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착한 순진이는 그런 마음을 아는지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학원비를 벌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순진이의 꿈은 작가가 되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글을 작성해보는 것인데, 그 꿈을 이루기까지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좌절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저희 복지관에서는 보다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고자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을 개설하여 모금을 진행하였습니다.

모금함을 개설한 후 순진이와 같은 꿈을 꾸는 소설가 지망생, 비슷한 환경에서 이겨낸 주부 등의 소중하고 감사한 많은 손길과 응원들이 모여졌고, 결국 총 6,600,000원이라는 큰 금액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창 감사하세요."

순진이가 학원에 가고 싶어도, 용돈 조금 더 달라고 해도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창 마음이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정말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저도 잘 신경쓸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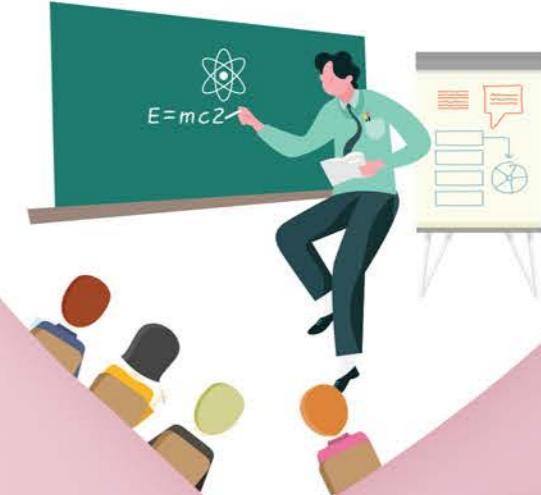
- 순진이 어머님

이렇게 모인 금액은 순진이 어머님과 이야기하여 순진이 학원비로 온전히 사용할 예정이며, 학원에 다니면서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어할 때마다 어머님과 복지관에서 함께 지지해주고 격려하며 꿈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돋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작가로써 멋진 꿈을 이루어나갈 순진이를 기대해주세요.

모금함 이야기

약을
만드는
연구원이
되고 싶어요

카카오
같이가치

하늘이는 어렸을 때부터 TV 다큐멘터리나 책으로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로 과학교육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는 세대는 끝났다고 하지만, 하늘이는 과학교육에 진학한 이후 각종 수학능력 시험이나 과학과목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내며 꿈으로 한발자국 더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또래 친구들과는 달리 공부를 하기 위해 구매해야 할 교재 값, 학원비는 하늘이의 가족 형편상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또, 원하는 대학교를 위해 공부하고 있지만 입학 후 등록금과 대학생 활동에 필요한 교육비 등 만만치 않는 비용으로 하늘이네는 걱정만 쌓여져갑니다. 하늘이가 교육격차로 인해 꿈을 포기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에서 교육은 평등하게 받는다는 것을 알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복지관에서 카카오같이가치 온라인 모금함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과학을 가르쳐주고, 발표수업을 통해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명문대학교 사범대학에 수시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수시 합격뿐만 아니라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수시 합격 후 개설된 모금함은 약 2달 동안 4,627명의 기부자분들이 총 2,683,600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된 후원금은 하늘이가 앞으로 구매해야 할 대학교 교재와 대학생 활동에 필요한 각종 교육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이 들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늘이 혼자 한 거지요. 저는 그냥 하늘이가 잘 할 수 있도록 잘 먹이고 하고 싶은 건 제 마음이 아닌 하늘이 마음을 존중한 것 밖에 없어요.
이젠 자기 꿈을 위해 스스로 선택했으니 잘 할 수 있도록 지켜보려고요."

- 하늘이 아버님

카카오같이가치 모금은 끝났지만, 하늘이가 대학교에서도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 바랍니다.



얘들아 놀자!

제1탄 물총놀이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 우리 동네 아이들은 무얼 하고 놀까요? '동네에서 친구들과 물총싸움 한 번 제대로 해보자!' 하고 불러 모았더니 50여 명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수중 보물찾기, 물풍선 던지기, 릴레이 물 담기 등 다양한 게임을 하면서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도 재미 있게 어울리고, 신나게 물총 놀이를 하면서 무더운 여름을 함께 시원하게 보냈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흥뻑 적시며 노는 아이들의 표정이 보이시나요?

동네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잘 찾아보기 어려운 요즘,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한 즐거운 현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어울리는 우리 동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탄 달빛영화제 'Bongchun Toy Story'

10월 어느 날,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과 부모님을 초대하여 '달빛영화제 BTS'를 진행하였습니다.

팝콘을 받고 삼삼오오 모여앉아 영화 토이스토리를 관람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영화를 보면 아이들, 부모님들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면 가족관계가 더 돋독해 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영화 상영 후 너무 재밌고, 좋은 시간이었다며 입을 모아 말해주셨습니다. 영화제를 계기로 지역주민들과 한층 더 가까워 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영화제를 빛내준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3탄 크리스마스 파티

메리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5일 앞둔 12월 20일(목) 봉천복지관 강당이 시끌벅적 했습니다. 지역 주민 15가족이 함께 모여 크리스마스파티를 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기념 하며 멋진 산타 의상도 뽐내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복지관 곳곳에 숨겨진 보물(팬케이크 재료)을 찾고 친구와 나눌 땐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개성 가득한 팬케이크를 만들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봉천복지관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어르신! 파티해요! 추석·겨울파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이 명절을 기쁘고 유쾌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9월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3일 동안 마을 곳곳의 경로당에 찾아가서 어르신들께 인사드렸습니다!

알까기와 투호놀이, 신나는 노래자랑까지 함께 즐거운 명절의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출출해진 어르신을 위해 준비한 식혜와 꿀떡을 먹으며 몸과 마음이 훈훈해졌답니다. 어르신들이 기쁨으로 명절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께 인사드리고, 함께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줄 통합연주회!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복지관에 찾아오셨어요!

11월 3일(토)에는 포스코·밀알복지재단에서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을 위해 멋진 마술쇼와 양상을 연주, 맛있는 뷔페를 준비해주셨어요. 겨울파티를 통해 마을의 어르신과 관계 맺고 소통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복지서비스팀 story

복지서비스팀이
2018년도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어르신,
청년, 가족들을 만나면서 한 층 더 성장하고,
주민과 신뢰하며 협력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한 이야기입니다.
대상을 더 사랑하고,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2 청년을 만나다 - 지역단위특화사업 ‘행봉공방’

“처음에는 모임을 열정 고민하다 어렵게 나왔는데,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 올라와서 아는 사람이 한정도 없어 우울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임을 통해 우울증이 해소되었어요. 고마워요.”
“행봉공방 하는 거 열정 기다렸어요. 매 회기 너무 좋고 기대되는 모임이었어요.”

- 평가회 인터뷰 내용 중 -

2018년 5월, ‘행봉공방’은 희망두배청년통장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하기 위해 공예활동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던 청년들도 모임이 진행될수록 서로 끈끈해지고 유대감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축제에 본인들이 만든 공예물을 기부하고, 재능기부를 하는 등 청년들의 활발한 나눔이 인상 깊은 모임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청년인구 1위인 관악구, 청년들이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통해 본인의 재능을 펼치고 정서적 지지를 얻는 유익하고 행복했던 모임이었습니다.



1 청소년을 만나다 ‘당차게’

자아탐색 자조모임

친구들과 같이 나를 알아가기 위한 활동으로 타인이 보는 내 모습, 내가 잘하는 것은?
내 감정은 어떤 상태일까? 등에 대해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배워보고 싶은 활동, 관심 있는 활동에 대해 논의해보고
가고 싶은 테마활동지를 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역량강화교육

자아탐색자조모임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논의했던 하고 싶은 활동으로 요리활동과 풍선만들기 활동이 계획되어 진행했습니다.
내가 잘 하지 못하더라도 잘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강사 선생님과 옆에 친구들이 있어 맛있는 요리와 멋진 풍선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나눔활동

독거어르신건강관리프로그램 어르신들과 같이 절기 맞이 요리 만들기, 풍선 만들기를 통해 직접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배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추석맞이 송편 빙기, 동지 맞이 팥죽 만들기를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함께 해요.”라는 친구들의 이야기에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친구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어르신을 만나다 - 노인정서여가지원사업 거동불편어르신나들이 ‘2018 어르신 행복 나들이’

평소 거동불편으로 외부 출입이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들이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과 가을 나들이를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들이는 마음더하기 봉사단, 한국타이어나눔재단 트움버스의 지원으로 풍성한 나들이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장소는 꽃과 식물이 가득한
포천 허브아일랜드로 다녀왔습니다!

라벤더 베개 만들기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여 재미가 더해진 나들이였습니다!

- 참여자 소감 -

- “이렇게 복지관에서 일년에 한 번씩 나들이를 가니까 꽃나물도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은데요.’”
- “올해 97세라 나들이에 참여하는 게 올해로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욱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 “온자서는 걷기도 어렵고 먼 곳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무서워서 나들이를
포기할까 했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참여해서 재밌었어요.”
- “한정도 좋고 오랜만에 나눠 ‘쓸 수 있었어요. 상쾌하고, 완쾌한 하루’”



4 가족을 만나다 - 영유아가족지원사업 ‘다같이 놀자 우린 한가족’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함께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넓은 장소에서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어서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아이가 저를 안아주며, 여기에 데려와줘서 고맙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다른 가족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평가회 인터뷰 내용 중 -

2018년 3월부터 시작된 ‘다같이 놀자 우린 한가족’은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족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한 가족으로 성장하도록 돋는 프로그램입니다. 놀이치료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포옹하고, 사랑을 나누고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체육활동을 하며 협동심을 키우게 되었고,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유아교육 전문가 선생님과 양육에 대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상담도 받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사는 이웃들도 사귀고, 건강한 아이와 부모님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들이 모여 아름다운 1년을 보냈습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 노인결식예방사업 ‘온기담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면, 복지관 3층 행복한 식당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결식 위기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이 그 주인공이었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신한카드의 지원으로 진행된 ‘온기담기’ 나눔 활동!

신한카드 임직원 봉사자와 복지관의 주민조직 사각 도시락, 마음더하기 봉사단 분들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모두 모아 뜻 깊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8개월 간 어르신들을 위하여 나눔을 실천해주신 신한카드 임직원 봉사자 분들과 주민 조직 봉사단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간에 나를 빙친다는 데고 싶다고 했더니 이런에 나를 이렇게 갖다 주네~ 고마워요 할상.”

“누가 이렇게 뜨겁게하고 서둘도 주고 한과도 주나. 딸도 떠느리도 이렇게 못하지...
할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 가정방문 시 어르신과의 대화 요약 -

신한카드 봉사자

- “저희(신한카드)와 함께 어르신들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을 해주어 감사합니다.”
- “관악구가 아닌 타구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데 여기 봉천복지관은 대상 어르신 집주소, 조리 활동 안내 등 전반적인 활동 진행이 매끄러운 것 같아요. 내년에도 신한카드와 함께 해요~”

사각도시락 활동가

- “어르신 댁에 가정 방문하는 봉사활동은 자녀와 처음이었어요. 초반에는 좀 어색했는데 2~3번 방문해보니 저희 아이들도, 저도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 “관악구 내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오늘 활동처럼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이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저희(사각도시락)도 꼭 불러주세요.”

마음더하기 활동가

- “어르신들을 만나 봐니 제 부모님, 조부모님이 생각나서 연락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기회를 준 복지관에 고맙습니다.”
- “주말에 봉사활동으로 나와 요리를 하는 것이 가끔은 힘든 날도 있었지만, 올해 활동이 끝나니 아쉬워요. 내년에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올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요.”

- 평가회 진행 시 참여한 봉사자 소감 요약 -



+ 사각도시락? 도시락으로 사랑을 나누는 우리동네 나눔이웃입니다.

+ 마음더하기?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음식,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단입니다.

복지관 이모저모

주민동아리 참여자 모집

접수 및 문의 : 김예슬 사회복지사 (☎870-4453)

동아리	내 용	모임일시
글놀이마당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책 읽는 엄마들의 모임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 10:00-12:00
햇살바구니	환경을 사랑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주민들의 모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10:00-12:00
다독	책을 통해 한국어도 배우고, 감정을 이해하는 선주민·이주민 여성들의 모임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 10:30-12:00
마담사	사진을 배우고, 마을사진으로 재능을 나누는 주민들의 모임	매월 첫째·셋째 주 금요일 10:00-12:00
싹싹회	지역사회 돌봄이웃을 위한 수납정리활동을 전개하는 주민들의 모임	매월 둘째 주 수요일 10:00-12:00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및 문의 : 황소영 사회복지사 (☎870-4456)

내 용	대 상	일 시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배식, 설거지, 도시락 배달 등	주부, 대학생 20세 이상 성인, 기업봉사단	평일 중 주1회 09:00-13:30

지원사업선정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기관
인권 똑똑! 인권 톡톡!	여성안심행복마을사업	서울시
2018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사업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사업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꿈꾸는 아이들	월드비전 ‘꿈꾸는 아이들’	월드비전
안전한복지관-외벽담장공사	서울시지원사업 시설개보수지원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직원동정

- 윤송희 과장이 예쁜 공주님을 득녀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임한솔 팀장이 멋진 왕자님을 득남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심소영, 국현호 사회복지사가 새식구가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는 우리 마을에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모금행사입니다.



우리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먹거리 나눔키트로 겨울철 먹거리 나눔

어르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물품지원으로, 거동불편어르신에게 보행기를,
가전제품이 없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새 가전제품 나눔

새교복을 입고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청소년 22명에게 교복비 지원

쓸쓸한 연말대신 소중한 친구와 함께하는 연말을 위한 친구야 놀자! 연말모임비 지원

이웃과 온정사이! 온기담기 봉사단이 어르신댁에 방문하여 맛있는 음식과 먹거리키트 전달

우리 마을의 이웃들의 나눔 덕분에, 따뜻한 겨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강민정, 국민연금관악지사, 기영미, 김광섭, 김미자, 김옥례, 박기수, 박소은, 변은숙, 봉삼희, 연세해맑은치과, 예수마을교회,
오피스넥스, 이미자, 이미화, 이수인, 이영분, 이정화, 이창은, 하태성, 해피빈, 현대자동차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와 밝은 미소를 전달해 드리는 청년이 되어있었습니다”

글_ 양정태 자원봉사자

저에게는 ‘봉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구슬땀을 흙치며 두 발로 뛰어다니면서,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한 ‘청년’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청년이 돼야겠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지니고 있었지만 부끄럽게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왔습니다. 모순적이게도 학업으로 제일 바쁜 시기인 대학 4학년이 돼서야 저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일구어낼 의지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여름학기 학교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하기 이전인 지난 4월부터, 저는 거동이 불편하신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해 도시락과 밑반찬을 포장하고 직접 배달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 식사를 쟁진다는 점이 뜻깊게 다가왔고 두 발로 뛰며 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의 첫 봉사일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설레는 마음 반, 긴장 되는 마음 반을 가지고 아침 일찍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그날 배달해 드릴 식사를 정성스레 포장 한 뒤 카트에 차곡차곡 담아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곳은 청림동 구역이었습니다. 주택가이기 때문에 길을 잘 찾아야 하는 곳이었지만 첫 봉사인 만큼 한 번 부딪혀 보겠다는 마음으로 해당 구역에 자원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청림동 지역의 김수철(가명) 할아버지께서는 눈이 잘 보이지 않으시니 특별히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도를 참고하며 골목을 찾아갔고 저는 첫 배달지인 할아버지 댁에 들어섰습니다. 건물 반지하 방의 할아버지께선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제 목소리를 향해 손을 더듬고 계셨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차례 상황을 그리고 들어섰지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까맣게 잊어 버렸습니다. 당황한 목소리로 봉사자임을 알려드렸고 할아버지의 더듬는 손에 저도 모르게 뺏祓한 도시락 가방을 대뜸 밀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바로 가방을 집어 드셨고 제게 고생한다는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저는 어찌할 줄 모르며 잔뜩 긴장한 채로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한숨을 돌리고 생각해보니 어딘가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침부터 봉사자만 기다리셨을 할아버지께, 그리고 저를 찾는 그 더듬는 손에, 저는 따뜻한 체온도, 밝은 목소리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그 정 없는 뺏祓한 도시락 가방을 전달한 것뿐이었습니다. 더듬는 손에 제 손을 따뜻하게 포개야 했고, 온기가 가득한 목소리를 먼저 들려드려야 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은 이 날의 기억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시락 배달이 주된 활동이지만 그 속에서 진정 무엇을 전해야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이후 봉사를 지속하며 어르신들에게 먼저 반갑게 인사드리고, 불편해하시지 않는다면 안부 말씀도 건네 보았습니다. 좋은 하루를 보내시라거나 맛있게 식사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건네니 어르신들을 대하는 것도 편해지고 나서는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한 주씩 청림동을 누비며, 지난 4월부터 이번 여름학기 사회봉사 기간 동안 관악구의 많은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첫 봉사의 기억은 처음엔 후회였을지 모르지만 봉사를 통해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힘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댁을 방문할 때면 요양보호사분들께서는 집안 정리를 도맡고 계셨습니다. 복지관의 선생님들께서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포장을 도우셨습니다. 근처 중국집 사장님들께서는 한 달에 한 번, 어르신들께 맛있는 자장면을 대접하기 위해 생계를 반납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시니어로서 한 뜻을 해내고 계셨던 복지관 이영숙 선생님의 모습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저 역시 구슬땀을 흘리고, 두발을 내딛으며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와 밝은 미소를 전달해드리는 그 ‘청년’이 어느새 돼있었습니다.

”

봉천 NEWS!

2018년 7월 ~ 12월

1 복지 서비스팀



당당하게 차원이다르게 자신있게 “당차게”

7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청소년지원사업 “당차게” 프로그램이 진행 되었습니다. 관악·구암·봉원중학교 청소년들이 서로 만나서 본인에 대해 알아가고, 친구들과 같이 요리, 풍선아트활동, 체험활동을 하며 친구들과 소통하고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서여가지원사업 특별행사 ‘어르신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가위 대잔치’

9월 20일(목) 봉천복지관은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함께 추석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르신 65명이 한자리에 모여 명절을 맞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르신 노래한마당, 경품까지 재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자조모임 “예그리나”

4월 첫모임을 시작으로 12월 평가회까지 꿈나래통장 참여 어머님들의 자조모임 “예그리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모임은 천연제품을 만들며 통장사업을 함께하는 어머님들이 누구인지 만나보고, 자녀양육·직장 등의 깊이 있는 나눔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통해 힘을 얻고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익하고 의미있는 모임이었습니다.

2 통합사례 관리팀



‘희망마차’ 식품나눔 행사

12월 11일(화) 오후 2시 강당에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주최, 이마트 후원으로 ‘희망마차’ 식품나눔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주민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필요한 식료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하여 희망마차의 인기를 실감 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마차 식품나눔 행사가 지역주민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통합사례관리팀 사례관리 컨퍼런스

11월 20일(화) 오후 4시 강당에서 통합사례관리팀 사례 관리 컨퍼런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복지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사례관리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안내하였으며 각 사례별로 사례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려웠던 부분, 성공적 변화가 있었던 부분을 공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덜고 좀 더 나은 삶을 생활할 수 있도록 돋는 사례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아이러브 크리스마스

12월 22일(토) 오후 2시 강당에서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과 함께 아이러브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가족파티를 할 수 있도록 케이크 꾸미기 활동과 더불어 파티에 필요한 과일, 고기, 과자, 파티용품 등 가족선물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우리 가족 만의 케이크를 만드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3 지역 복지팀



봉봉시네마 자원봉사자 후원자 감사 송년행사

11월 29일(목) 자원봉사자·후원자 송년행사가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롯데시네마 서울대입구역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현하며, 우수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게는 꽃다발과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봉천의 달인 영상을 시청하고, 영화 “국가부도의 날”을 즐겁게 관람하며 감사 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제8회 지역공감어울림축제

10월 13일(토) 제8회 지역공감어울림축제가 주민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림동 어울림 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공연, 장기자랑, 마을사진전, 체험활동, 놀이마당, 아나바다장터, 먹거리 마당 등으로 구성된 축제는 지역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 어울리며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관악 다문화가족박람회 Rainbow+

9월 15일(토) 관악 다문화가족박람회가 주민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악구청 앞 마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양하고, 주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연합한 관악무지개네트워크(지역사회 9개 단체)가 행사를 공동 주관하여 추진되었습니다. 다문화 먹거리, 장기자랑, 다양한 공연과 전통놀이 체험으로 주민 누구나 즐겁게 참여하여 소통과 연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